

광주시정 결산

굵직한 현안 물꼬 '빛'... 소통·협치 '그림자'

복합쇼핑몰·무등산 정상 개방·동북댐 갈등 해소 등 호평 “지방자치체 근본 가치 퇴행...대의회 소통·협치 독선적”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기치로 내건 광주시 민선8기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광주형 복합쇼핑몰 신설·옛 전남방직 부지 개발·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상시 개방이라는 굵직한 현안의 물꼬를 트는 등 기대감 가득한 순항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반면 광주시민을 대표, 행정을 이끄는 강기정 시장의 태도가 독선적이라는 쓴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세평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복합쇼핑몰 신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광주군공항 이전, 지산IC 진출로 안전문제 등 밀린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욕적으로 출범한 민선8기 강기정호.

민선8기는 출범 직후 대대적 조직개편과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력으로 주요 현안 해법의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대형 이슈로 떠오른 광주형 복합쇼핑몰사업은 여러차례 방향을 수정한 끝에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기에 이르렀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도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이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한다. 광주시는 투명·공정·신속성이라는 원칙과 함께 전 과정을 시민에 공개한다.

지역 최대 현안이자 해묵은 과제인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대구시와의 연대 등 새로운 접근 방식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 일부 지역 주민 반발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처음으로 함평에서 열리는 등 이전대상지 선정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에서도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담겨 있어 법안 통과 때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좌측 진출 방식으로 준공과 함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지산IC 진출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교통사고 예측·위험도 평가에 들어갔다. 지산IC 진출로 개통 여부는 내년 3월 결정된다.

광주시민의 염원이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도 이끌어 냈다. 군 부대 주둔 56년 만에 무등산 정상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온 것이다. 내년 9월부터는 매일 무등산 정상을 오를 수 있다. 정상에 자리한 군 부대도 새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곧바로 떠난다.

동북댐 일부 구간 관리권 이양 문제를 놓고 화순군과 19년간 이어 온 갈등 역시 통큰 양보로 단숨에 해소했다.

짧은 기간 크고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강 시장을 향한 쓴소리도 연이어 터져나왔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집담회를 열고 강 시장의 대의회 소통 방식과 협치에 대한 인식 등을 지적했다. 특히 ‘참여와 자치’라는 지방자치체의 근본가치가 퇴행한 시기였다며 민선8기 지난 6개월을 혹평했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시의회를 향해 “화풀이성·감정적 심의 방식”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 감정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강 시장은 당일 공식일정을 취소한 뒤 계획이었던 무등산을 찾았다. 이유불문 시장으로서 가벼운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대표로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가치관과 자만·독선의 태도가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모습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 시장이 ‘가치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만 소통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멘소리로 시청 안팎에 상존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도 필요하다면 써야 한다는 일침이 나온 이유다.

산하·출연기관장 인사 잡음도 욕의 티다. 민선8기 대부분의 기관장 인선은 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7월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장 취임식에 참석, 민선8기 시청 방향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개모집 절차를 거쳤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정했는데 공개롭게 강 시장과 선거를 함께 치렀던 인사들이 대거 뽑혔다. 이 때문에 공개모집의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강 시장은 적재적소 원칙을 강조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개월을 씬없이 달린 강 시장은 “지금 광주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와 활력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며 “무엇으로 시민 삶을 풍요롭게 채울 것인지 열열하게 고민하고, 시청의 방향성은 항상 시민과 공유하면서 365일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전남도정 결산

미래 먹거리 기반 초석... 우주산업 비상 원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유치 첨단전략·농수축산업·문화관광 등 핵심 산업 추진 순항 에너지신산업 유치 산단 조성 선제적 대응 등 아쉬움

재선에 성공해 민선8기 시대를 연 ‘김영록 호(號)’의 전남도정은 민선7기에 이어 안정 속에서 첨단전략·농수축산업·문화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미래 먹거리 기반 초석을 차곡차곡 다진 해로 평가 받는다.

1조원 넘게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전남이 우주산업의 메카로 비상하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해남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도 내년에 착공한다.

올봄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와 함께 시너지를 낼 나주에너지국가산단 조성사업도 최근 예타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분예산 기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한 10조 470억원을 편성했다. 국고예산도 처음으로 8조원 넘게 확보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힘을 쏟았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민선8기 도정 핵심 시책을 실현할 분야별 전략도 방향성을 갖춰 나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8기 추진할 8대 역점사업으로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조성’,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국내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달성’, ‘농축수산업의 미래 생명 산업화’, ‘SOC(사회간접자본) 르네상스 완성’, ‘전남행복 시책 추진’, ‘전남·광주 조광역 경제동맹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세계 최대 규모 8.2기가와트(GW)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새 정부 들어 원전 등과 결부돼 먹구름이 예상됐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어업인과 상생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유치’는 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한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올 한해는 무엇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1조 6084억원 규모의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특화산단 지정계획 반영을 비롯해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159억원),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2304억원), 20억 달러 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유치(미국·200MW 규모), 서남권 산단 대개조 25개 사업 선정(3619억원),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국가사업(226억원) 유치 성과 등이 눈에 띈다.

농어업 분야에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예타 통과·예산 반영(3582억원), 김치 원료공급단지 구축 공모사업 선정(290억원),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선정(196억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선정(180억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남도장터 법안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 개장 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냈다.

관광·문화 분야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공모 선정(320억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확정, 거문도 근대역사문화 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부분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강화, 전남 공공사후조리원 거점별 설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광주·전남 상생과 관련해서 16년 만에 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문제를 타결 짓고, 화순 동북댐 관리권을 광주시가 화순군으로 이양하고, 210억원을 지원받는 주변지역 상생협력 협약을 이끌어 냈다.

도정의 안정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정부합동평가에선 사상 첫 전국 1위를 달성한 원년으로 기록됐다.

김영록 지사의 경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민선8기 들어 지난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함으로써 도정 안정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민선7기에도 43번의 직무평가에서 30번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시·도 상생의 대표적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움직임, 나주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얽힌 광주시 쓰레기 반입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여기에 지난 22일 나주에너지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지만 선제적 대응을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산단 준공까지 5~7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당장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공간 부족에 에너지밸리 완성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민행복 시대를 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층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는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